더 나은 전북 위해 전진

김관영 전북특별도지사는 1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민선 8기 도정의 반환점을 돌아 후반기 임기를 소화하게 된 소회를 이같이 밝히고 '활기찬 전북', 도민이 '행복한 전북'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의 백년대계를 다져 나갈 도정 운영방향을 내놓았다.

김 지사는 지난 2년 동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기회발전특구 지정 △사상 최대 기업유치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등 성과를 언급하며, 전북의 혁신적인 정책을 바탕으로 더 나은 전북을 위해 전진하고 있다고 압축했다.

지난 2년 동안의 성과와 관련해, 전북특별자치도가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전북만의 색을 칠하는 동시에, 전북자치도의 정책이 도민의 삶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반기 성과에 안주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남은 임기에 대해서는 오직 도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에 본보는 김관영 도지사로부터 민선8기 2주년 성과에 대해 들어봤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1일 도청 기자회견장에서 취임 2주년 기자 브리핑을 열고 지난 2년 동안의 성과를 발표하고 있다.

Q. 취임 2년을 지나 3년차로 접어듭니다. 소감이 궁금합니다.

- 전북경제를 살리라는 도민들의 절박한 소망에 부응하기 위해 저를 비롯해 전북도정은 지난 2년간 열심히 뛰었습니다. 기업인을 비롯해 많은 분이 전북이 바뀌고 있다는 말씀을 주십니다. 멈추지 않겠습니다. 전북경제의 도약을 위해 우리는 계속 도전할 것입니다.

지난 2년의 시간, 우리 전북은 많은 이들이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일들을 해냈습니다. 연이은 대기업 투자 유치,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그리고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유치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함께 도전하고, 함께 성취해 냈습니다.

지난 2년이 우리에게 '도전하면 할 수 있다'는 희망의 씨앗으로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전북이 가는 길이 대한민국이 가는 길이 될 수 있다'는 믿음과 각오로 도민과 함께 전진하고, 함께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Q. 임기 절반가량 지났는데, 어떤 부분을 역점적으로 추진해 왔는지?

- 전북경제를 살리는 일에 모든 역량을 쏟았습니다. 도민들의 먹고사는 일만큼은 믿고 맡길 수 있는 도정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특히, 전북경제의 생태계를 성장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 기업들, 성장 잠재력이 큰 기업들을 유치하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동시에 삼성전자와 함께 전북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을 추진해 도내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일도 시작했습니다. 대기업들과 도내 기존기업들이 함께 공존하고 함께 혁신하면서 전북경제의 쌍끌이 역할을 하며 역동적인 경제 생태계를 형성해 갈 것입니다.

'사람'을 키워내는 일도 중요했습니다. 기업의 핵심 경쟁력은 '사람'입니다. 원하는 인재를 전북에서 찾을 수 있어야 기업이 옵니다. 또한 교육혁신은 우리 도민과 청년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와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도 놓칠 수 없는 과제였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교육협치를 통해서 인재양성 환경을 발전시키고자 했습니다.

경제 생태계를 혁신하는 과정 중에도 우리의 시선은 늘 민생을 향해 있었습니다. '민생일보 행복만보'와 같은 현장 중심의 민생투어를 통해 도민의 삶에 온기와 활력을 불러일으키는 데 온 힘을 다했습니다.

변화의 조짐들이 곳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과 함께 바이오, 방위산업 등이 차세대 산업으로 성장 중입니다. 대기업 6곳을 비롯해 124개 기업이 전북과 투자협약을 맺었습니다. 투자 규모도 12조 원이 넘습니다. 기업의 불모지였던 전북이 2024 국가대표 브랜드 대상에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 대상을 받은 일도 성과입니다. 전북자치도를 세계 기업인에 소개할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Q. 지난 2년의 임기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성과는 무엇입니까?

-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처음 지정에 나섰을 때, 아무도 전북의 성공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만류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도해 보고 싶었습니다. 실패하더라도 경험과 노하우는 남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매주 전략회의를 열었고, 직접 PT 준비에 나섰습니다. 도내 연구진과 외부 전문가들의 지혜와 힘을 모두 결집했고, 기업 유치에 전력을 쏟았습니다. 대기업의 투자 러시가 이어졌고 PT를 비롯한 지정 과정에서 우리의 진심이 전해지면서 기적처럼 특화단지 지정에 성공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도 중요한 이정표였습니다. 입법 과정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된 도민의 힘을 보여줬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법이 통과되는데 14년이 걸렸던 데 비해, 전북특별자치도는 발의한 지 133일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를 통해 우리는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부여받았습니다. 새만금 고용특구와 농생명산업지구, 친환경산악관광진흥지구 등 15개의 특구와 지구·단지 등 지정 등 333개 특례에 담긴 기회들을 성공스토리로 바꿔나가기 위한 과정을 열심히 준비 중입니다.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유치도 잊지 못할 일입니다. 경험 부족, 인프라 취약 등의 이유로 이번엔 어렵다는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역전시켰습니다. 해외 출장을 하며 한인 경제인들에게 절절히 호소했고, 인프라 문제는 새로운 아이디어로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프리젠테이션을 전북의 진심과 강점을 전하는 기회로 만들었고,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민선8기 2년간 다사다난했고, 많은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를 꼽은 이유는 도민의 도전과 성취가 그 안에 고스란히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도민의 기세를 살리고 전북도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과 희망을 선사한 순간들이어서 제게 더 소중하게 남아 있습니다.

Q. 반면, 가장 아쉬운 점은?

- 잼버리가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하고 국가예산 등 도정이 차질을 빚게 됐던 점이 대단히 아쉽습니다.

> '전북이 가는 길, 국가가 가는 길' 각오로 혁신
> 지난 2년 전북경제 살리는 일에 역량 쏟아부어
> '사람' 키워내는 일도 중요… 교육협치 나서
> 가장 기억에 남는 성과는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 전북특별자치도 통해 새로운 도전 기회 부여받아
> 잼버리 실패 · 국가예산 삭감 등은 아쉬움으로 남아
> 기업친화정책, '기업하기 좋은 대상' 수상 동력

대회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한 전북의 노력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고, 대회 이후 새만금 관련 국가예산이 삭감되고 타당성 조사를 다시 받았습니다.

다행히 도민과 함께 국가예산의 마지노선을 지켜냈고, 타당성 조사도 통과해 사업 추진의 동력을 재확보했습니다.

최근 새만금 잼버리 현장 곳곳을 담아낸 잼버리 유산화 기록물을 만들었습니다. 파행 논란으로 제대로 전해지지 못했던 잼버리 현장의 활기와 열정이 진솔하고 생생하게 담겨있는 자료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에서 영상과 사진을 모두 볼 수 있습니다.

잼버리에서 저마다 얻은 배움과 교훈을 되새기고 미래 세대에 물려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Q. 불가능해 보였던 이차전지 지정을 이뤄낸 것은 가장 큰 업적으로 꼽힙니다. 지정이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 산업부의 지정 공고가 났을 때만 해도 내부에서도 어렵다고들 했습니다. 포항이나 오송 같은 지역의 경쟁력이 압도적이었고, 전북에는 성일하이텍을 제외하고는 선도기업조차 없었습니다. 객관적 여건으로는 밀리는 게 현실이었습니다.

제가 먼저 '도전해 보자'라고 나섰습니다. 도전 자체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이왕 도전할 바에는 된다는 각오로, 할 수 있다는 결기로 치열하게 해보자고 했습니다.

관련 전문가와 공직자들이 힘과 지혜를 모았고, 선도기업 유치를 위해 모두가 현장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도 직접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습니다. 나중에 보니 반도체와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특화단지 지정을 신청한 25개의 지자체 중 도지사가 프레젠테이션에 나선 지역은 전북이 유일했습니다. 심사위원들도 인상적이었다는 평을 전했습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매주 도내 이차전지 기업 관련 동향과 보도자료, 언론 스크랩 등을 모아서 산자부를 찾아갔습니다. 전북의 열정을 보여주고 관계자들을 설득했습니다. 도민들과 도내 대학생들도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특화단지 유치를 지지하는 성명서를 내고 도의 노력에 힘을 실어주셨습니다.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 전북의 열정과 간절함, 절박한 노력으로 우리는 결국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을 이뤄냈습니다.

Q. 기업하기 좋은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동력은 무엇이었습니까?

- 전북만의 기업친화정책 덕분이었습니다.

도지사 직속기구로 기업유치지원실을 설치하고 기업유치와 창업촉진정책, 친기업시책을 적극 발굴해서 추진해 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민선 8기 출범 후 도에서 시도한 1기업 1공무원 전담제를 도내 14개 전 시군으로 확대해 2,500여 기업에 전담 공무원을 1대 1로 매칭했습니다. 기업민원신속처리단을 구성해서 인허가 절차를 기존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했습니다.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지정과 각종 특구를 통한 세제 감면과 규제완화를 이끌어 낸 점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환경단속 사전예고제와 세무조사시기 선택제 운영, 기업맞춤형 외국인 근로자 비자사업 등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정책을 도입한 일도 성과로 인정받았습니다.

특히, 기업경영자들의 큰 관심사인 '노사화합'을 위해서 양대노총이 참여하는 상생선언을 이끌어냈고, 노사간 타협과 양보를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서 노사평화지대 형성에 노력하고 있는 점도 전북만의 차별화된 정책으로 평가됐습니다.

이차전지와 바이오 미래모빌리티, 기후테크 에너지 신산업, 방위산업 등으로 도내 산업지도가 미래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점도 플러스 요인이었습니다.

첨단산업의 불모지로 인식되던 전북이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절박하고 간절하게 노력해 온 모습이 평가위원들에게 진정성 있게 닿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기업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혁신하겠습니다. 기업친화적인 정책을 먼저 발굴, 추진하고 노사가 화합하는 문화를 조성해서 기업유치의 원동력으로 삼겠습니다.

Q. 지난 2년간의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스스로 평가한다면?

- '도전하는 도지사'였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지난 2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스스로 '도전하자'라고 되뇌었습니다. 그 말을 지키기 위해 매일매일 열심히 뛰고 부딪쳤습니다.

도민들을 만나는 자리에서도 수없이 '도전'을 외쳤습니다. 도전하면 이룰 수 있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해야 새로운 길을 열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도전해 보니 조금씩 길이 열리는 게 보입니다. 전북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겐 도전과 혁신의 DNA가 있습니다. 전북은 동학농민혁명의 땅이고, 의병의 고장입니다. 우리의 역사적 DNA를 믿고 도전해 보자고 도민들께 말씀드리고 싶고, 저부터 앞장설 것입니다. 앞으로도 도민과 함께 도전하고, 또 도전하겠습니다.

Q. 마지막으로 도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은?

- 도지사로 취임하며 도민들께 '함께 혁신하고 함께 성공하는 새로운 전북'의 꿈을 약속드렸습니다. 전북은 할 수 있습니다. 지난 2년의 시간은 우리 모두에게 '할 수 있다, 도전하면 이룰 수 있다'는 희망과 자신감을 확인한 시간이었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 초심을 잃지 않고 도민과 함께 그 꿈을 향해 계속 전진할 것입니다. 전북이 가는 길이 대한민국이 가는 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도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만호 기자